

# 구례군, 상반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자금 지원

### 다음달 10일까지 신청자 모집...만65세 이하 세대주 대상 농업창업 3억원·주택구입 7천5백만원 한도 이자 차액 보전

구례군은 1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2021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21년 기준

만 65세 이하(1955.1.1.이후 출생자)이며 세대주인 자로 농업을 통해 구례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자금은 연령 제한이 없고, 재촌 비농업인은 귀

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구입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증진센터 참여 시간의 50%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며 사전에 교육이수를 마쳐야 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사업은 농업창업 분야(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3억원 한도, 주택구입·신축·증·개축 분야(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7천5백만원

한도로 농업을 통해 구례로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융자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2월 1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구례군청 홈페이지와 구례군체육농업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구례=박진호기자



## 장성군, 농촌버스 노선 다음달부터 '전면 개편' 신규 아파트 건설·도로 개설 등

장성지역 주민들의 든든한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된다.  
장성군은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과 도로 개설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버스노선 전면 개편은 지난 2011년 군민운수와 장성교통 합병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다.  
장성군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달라진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기존 노선은 최대한 유지했다.  
가장 먼저 변화된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오동촌(구산동)과 황룡행복마을 노선 1대 더 늘려 총 29대 운영

## 화순군,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오는 22일까지 신청서 접수

화순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1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대상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화순군은 올해 24개 마을공동체에 1억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공동체 발전 단계별로 '씨앗(공부) → 새싹(기획) → 열매(빛깔)'로 나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에 거주하는 5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라면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 24개 공동체 1억2000만원 지원 5인 이상 주민 모임·단체 가능

대상 사업은 △마을 유래·특성 등 지원조사·발굴 △마을 계획수립과 주민교육 △마을 특성에 맞는 브랜드 사업 등이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공동체는 공동체 규모와 참여 실적에 따라 씨앗단계는 250~500만 원, 새싹단계는 800만 원, 열매단계는 2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서는 오는 22일까지 화순군 마을공동체혁신센터(061-373-3438)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hwasungun1@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은 1차 심사 후 전라남도 최종 심사를 거쳐 2월 중 선정 마을공동체를 발표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지난해 씨앗단계 20곳, 새싹단계 3곳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했다. 화순=박순철기자

## “겨울 대표 과일 딸기, 담양에서 개발한 ‘메리퀸’ 드셔보세요”



### 당도 높고 신맛 없어 젊은 고객 수요 높아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며 껍질이 없어 쉽게 먹을 수 있는 딸기는 감귤과 포도를 합한 것보다 많이 팔려 명실상부한 겨울 대표 과일로 자리잡았다.  
딸기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종인 설화과 함께 담양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딸기 ‘메리퀸’이 떠오르고 있다.  
담양농업기술센터에서 2017년

육성한 품종 ‘메리퀸’은 과실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고객층의 수요가 높다.  
또한 앞서 유럽에서 품종보호권을 확보한 담양 개발 딸기 ‘죽향’, ‘담향’에 이어 메리퀸 역시 품종등록을 위해 서류심사와 재배심사가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당도가 높고 신맛이 낮을 뿐 아니라 과육이 단단해 저장성도 우수하고 꽃대가 연속으로 나와 꾸준한 출하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며 “앞으로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공급량을 늘려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 곡성군, 친환경농자재 지원 평가 우수기관

곡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친환경농자재 지원 평가'에서 전국 자치단체 기관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 평가는 토양 환경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 자치단체와 농협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에는 토양환경의 적정성(유기물함량, pH), 유기질비료 및 화학비료

사용량,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등 실적과 지자체의 친환경 농업 자재지원 노력이 반영됐다.  
곡성군은 군 자체 사업으로 녹비작물 543ha(1,569포/20kg), 수도용 유기상토 4,011ha(210,434포/20l), 유기질비료 1,329ha(387,167포/20kg)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토양검사,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곡성=양해영기자



## 나주시, 공산농협과 발작물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임대 농기계 전달

나주시는 공산농협과 함께 발작물 주산지 일관기계화 장기임대용 농기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제적 부담 경감과 발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에서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해 신청 농협 등에 장기 임대해준다.  
시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공산농협과 최근 전달식을 갖고 콩 이식기,

색채 선별기 등 임대 농기계 6종을 장기 임대했다.  
공산농협은 농기계 구입가격의 20%를 5년 간 분할 납부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발작물 기계화를 제고와 경영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 화순군, 청년 크리에이터 44명 배출

화순군이 청년 크리에이터 44명을 배출하며 1년여 간의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청년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은 '2019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화순 청년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세 가수로 나눠 진행한 교육

에 총 60여 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이중 44명이 최종 수료해 수료율 74.4%를 기록했다.  
교육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유튜브, 로컬매거진, 문화기획의 세 분야에 관해 배웠다. 촬영, 편집, 글쓰기, 축제 기획 등의 전문 지식을 습득했고 실습을 통해 능력을 키웠다.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